

소의 행동장애증 (Behavioral Disorder)

박은호

전라북도수의사회 회장
전주 남문동물병원 원장
jbvm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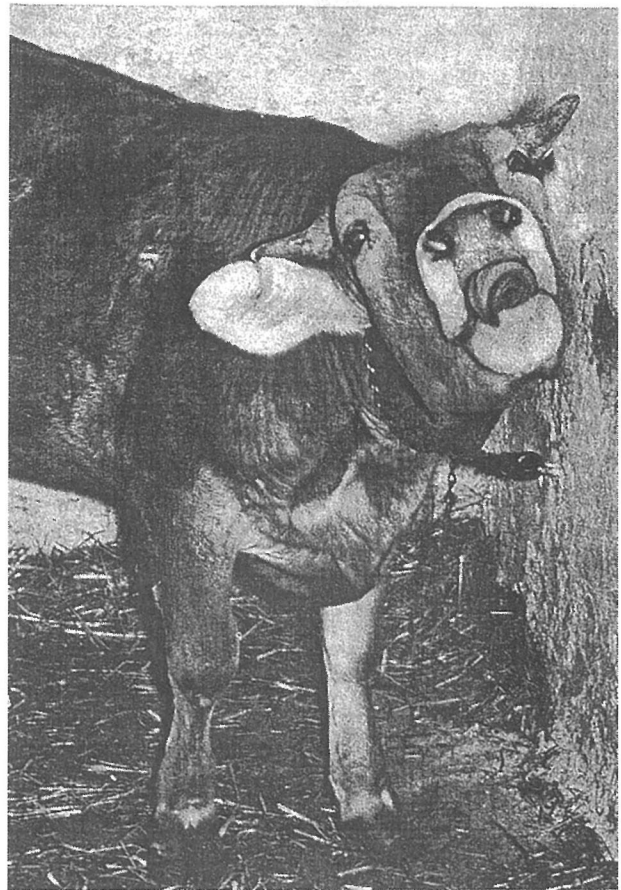
소의 행동장애증의 하나인 혀굴림증(Tongue Rolling)은 소 입안에서 혀를 전후좌우 및 회전식으로 굴리며 휘감는 (Coiling) 특이한 동작과 트림하는 소리를 동반하는 동작이 급만성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혀의 움직임이 장애를 받아 정상적이지 못한 비 생리학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소는 침흘림과 사료섭식 및 물먹는 것이 곤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흡입을 막아 호흡곤란을 동반할 때도 있다.

본병은 암수 동연령층에서 공히 나타나는데 특히 습한 지역에서 사육중인 소나 영양결핍 시에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인이 완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겨울기간 동안 마구간에서 사육되는 소나 여름철 우기를 거치는 방목기간 중에 영양결핍에 의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구리나 코발트가 적은 방목지의 목초와 망간, 철분 등이 결핍된 사료 등을 섭취한 소에서 출생된 송아지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부모 축에 영양부족 내지 결핍선행원인이 주어진 것으로 이로 인한 환경유전병으로도 간주하고 있다. (G. Rosen Berger)

주요증세를 살펴보면 소가 머리를 높이 쳐들고서 현저하게 혀를 앞으로 내밀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비틀며 (Awisting)굴리면서 목구멍으로부터 시끄러운 소리를 냈을 때 동시에 때로는 공명된 큰 소리를 내기도하고 공기와 침을 삼키는데 곤란한 동작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장애가 계속되는 동안은 자연히 사료섭취에 장애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영양상태 불량에 초래되기도 한다.

치료 및 예방적인 차원에서 권고되는 사항은 종합적인 영양(미네랄포함)결핍방지를 위한 목초지의 토질관리 및 거름 시비점검, 사료의 복합적인 구성사항을 관찰 점검해야 하며 특히, 사료배합조성에 미량요소 인, 나트륨, 구리, 코발트, 망간, 철과 비타민 A, D가 부족하지 않도록 점검해야한다.

치료요법으로는 혀 놀림 자재기구(접시모양), 입마개장치 또는 혀 놀림 방지 고리 등의 물리적 기구장착이 효과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과적 수술요법으로 혀 놀림 장애를 정복시키는 방법도 있다. 즉, 특수한 핀셋을 가지고 혀를 입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낸 위치에서 혀 놀림 방지 기구를 혀 설대의 앞 가장자리를 가볍게 만곡할 정도로 깊이 삽입한다. 따라서 혀를 내밀 때의 압통은 몇 시간 후에는 약 80%까지는 결점을 제거할 수 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시는 실험적인 2개의 설대 고리를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요법으로 약 75%만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며 또 완쾌된 후에도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G. Rosen Berger)

필자는 전북도내의 여러 한우, 육우, 유우 목장에서 본증에 관련된 환축을 자주 목격할 수 있어서 여러 문헌을 찾아보았다.

외국의 경우는 유럽대륙의 중앙산맥지역인 남부독일(연평균 강우량 1,600mm), 스위스(연평균 강우량 2,000~4,000mm) 및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문헌 상 보고를 접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병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임상적 연구관찰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G. Rosen Berger의 "Krankheiten Des Rindes" (1978)